

바른 사관(史觀), 참된 민주주의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새해 첫날입니다. <희망세상> 가족 모든 분들께 더욱 정성된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며, 축복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매해마다 나름대로 뜻이 있지만, 2010년 올해는 더욱 뜻 깊은 한 해입니다.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2월 28일 대구 학생의거와 3월 15일 마산 3·15의거 그리고 4월 19일 4·19 민주혁명 50주년,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 30주년, 5월 24일 김재규 부장 희생 30주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10주년, 6월 25일 민족상잔의 비극 60주년, 8월 29일 국치 10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100주년, 60주년, 50주년, 30주년, 10주년 등 그 역사적 행업의 교훈과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할 한 해에 와 있습니다. 사건 하나의 의미만을 되새겨도 모자랄 이 한 해에 우리는 엄청난 역사적 행업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하니 그 책무는 참으로 더욱 큼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올해 민주주의의 물줄기를 바로 세워야 할 6월 2일 지방선거에 임합니다. 순국선열, 자유민주통일 희생자들의 정신을 길잡이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심화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선열들과

민족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고 계신 안중근 의사의 모습은 어머니 조마리아님께서 직접 만드신 옷을 입고 순국 5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안 의사는 자신의 전존재를 걸고 순국 5분 전에도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결단과 기도가 올해 우리 모두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당 이승만 독재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며 분연히 일어섰던 대구고등학생들의 2·28의거, 부정선거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마산 시민 학생들의 장렬한 항거, 최루탄이 눈에 박혀 관통한 채 바다에 던져진 김주열 열사의 부활, 경무대 앞에서 경찰의 총에 피 흘리며 숨져간 4·19의 불사조들, 민족의 십자가 제물인 5·18광주 항쟁희생자들, 이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증언이 우리 모두를 숙연케 하며 새삼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민족상잔의 6·25비극을 거치면서 우리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패전국 일본이 당해야 할 수모를 어처구니없게도 한국이 당하고 미국과 소련의 흥정으로 한반도가 분열되어 그 역사적 배경과

음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는 서로 싸우고 죽이고 혈투하며 살았던 참으로 선열들 앞에 부끄러운 후손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침략국 일본의 거짓과 속임수에 놀아나며 일본의 침략이 한국의 현대화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등 정신 나간 무리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선열들께 큰 죄임을 고백하며 올바른 역사의를 되새깁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지닌 민족만이 살아남고 존재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인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라는 선조들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이제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다 같은 한국인인가, 한국 사람답게 살아야지' 라는 아주 평범한 교훈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순국선열들의 의지와 일제침략의 만행을 제대로 기억하는 후손이어야 함을 되새기며 안중근 의사와 4·19민주혁명, 5·18광주항쟁의 이름으로 그리고 민족상잔의 비극 속에 숨겨진 남북의 모든 희생자들을 기리며 분단과 분열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일제의 침략에 있음을 깨닫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정치현실을 크게 부끄러워하며 뉘우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일그러뜨리는 무리들을 올해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꾸짖고 고발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6·25민족상잔의 과정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은 채 미·소 대리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서 서로를 죽인 부끄러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선열들의 정신과 동족애에 기초하여 우리는 2000년 6월 15일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룩했습니다. 아름다운 큰 진전입니다. 민족의 일치와 화해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는 확신으로 우리는 이날을 기립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민족의 성숙함을 온 세계에 확인시킨 아름다운 행업입니다. 이를 기초로 우리는 국치 100주년을 뼈아픈 마음으로 성찰하며 민족적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사실 역사는 반복이기도 합니다. 100년 전 친일매국노들이 판치던 그 불길한 징후가 여전히 지금도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심심찮게 들려오는 일본왕의 방한소식이 그중 하나입니다. 올해 우리가 새삼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깊이 되새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0년이 바로 창조적 한 해이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바른 사관에 기초한 참된 민주주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구체적 실천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CSU*